

사설

교육은 국가의 百年之大計라 한다.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동일한 형식논리로 승려교육은 불교의 장래를 결정하는 초석이다. 승려교육의 양적 질적 발전이 21세기 한국불교의 모습을 새롭게 보여 줄 수 있는 것이다.

때마침 조계종의 승려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원은 전국 강원 통·폐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 통·폐합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단계로 전국 강원 통·폐합을 추진하여 통·폐합을 발생시킬 승려교육의 장단점을 검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 교육원의 실무자는 통·폐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

승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 현대사회의 특성이 다양·전문화에 있으며, 국내외의 간격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바야흐로 지구촌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일반은 승가 구성원들이 현대사회에 알맞은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세계를 정토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시대적 전통이나 교육방식에 연연하기 보다는 다양하고 집중력 있는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강원이 단순히 경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주는 곳에 머물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제반 교양도 이수케함으로써 출가 수행승들이 사회 일반의 정신적 사회

열린마당

조계종 강원 통·폐합

교육의 질개선·특수강원 폭넓게 검토

조계종 교육법 제70조에 의하여 모든 승려는 중앙승가대학이나 지방승가대학을 기본 의무교육기관으로 이수하여야만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전국에는 14곳의 지방승가대학이 있다. 학인들이 20명 미만인 곳이 5곳이다.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예산 낭비를 뾰루지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가 없으므로 지방승가대학(강원)을 개편,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부터 대두되어 왔다.

일부 지방승가대는 훈교와 적이고 변화없는 강의가 계속될 뻔하여 강의도 강주 중심이다. 또한 각 강원마다

항적스님



교재나 교과과정도 통일되어 있지 못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없다. 그러므로 승가대를 총림을 중심으로 3~4곳 정도로 통합하고 기존의 강원은 사찰 특성에 맞게 학림이나 특수 전문강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영어, 일어, 산스크리트어 등을 가르치는

어학 전문강원이나 어산 법패 등 불교의식을 전수시키는 강원, 또는 체계적인 총무행정 지도하는 곳 등 특수강원을 만들면 다변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현대의 정보사회와 보조를 맞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담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교육원은 25일 「전국 강주 및 교육관계자 연석회의」부터 시작해 지방승가대(강원) 개편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6월경 지방승가대 개편에 관한 사상적 이론을 도출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 사부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전통과 시대적 요청 조화를

해 두가지 측면으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학년별 통·폐합이다. 각 학년마다 강사의 전공과 학생수,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통·폐합시키는 방식이다. 이것은 강원 통·폐합을 유도하는 장점은 있으나 종합적인 승가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는 부진한 강원 통·폐합이다. 학생 수의 과다와 교수진의 양적 질적 문제 그리고 지적 환경적 요소를 감안하여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분산된 힘을 하나로 집중시켜 교육에 투자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승가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백년 내지 수십년간 계승되어 온 각 강원 통·폐합이 무너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 시점에서 교육원이 강원 통·폐합을 유도하려는 것은 대

적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정·의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나 교육제도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승가교육은 불교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으나 없느냐를 가름하는 잣대다. 불교의 이상이 개인의 해탈과 살기좋은 세상을 건설하는데 있다면 강원 통·폐합의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조계종의 전통 강원이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종단이나 전국 14곳 강원 통·폐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뜻있는 불자들은 이 보다 더 큰 불사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적극 후원을 하기를 발원하고자 한다.

사회의 정량제가 될 수 있는 승가가 있는 사회는 희망과 기쁨이 있는 사회가 분명할 것이다.

사찰 전통있는 강원 필요성 인식하길

강원은 대부분 전통적 기 존 사찰에 개설되어 있다. 당해 사찰에 주지가 당연직 강원장이 되고 예산이 사찰 일반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강원 교육기관으로서의 독자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여기에 몇몇 강원에서는 학인이 부족하여 강의가 폐강되는 등 유명무실하게 되 차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원에서 「강원 통·폐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강원은 종단의 기초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교육 기관이다. 승려전문교육기관 일 뿐 아니라 대부분 초심자들이 입학하여 승려로서의

현강스님



전문적 교리와 인격을 확립하고 연마하는 곳이다. 이러한 강원 통·폐합을 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강원들을 모으고 교육체계를 통일 시킨다는 것은 찬성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원 통·폐합은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사찰의 전통을 잃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있는 강원도 만들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내실이

부족하다하여 강원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는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전통강원은 각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 오랜동안 쌓아놓은 고유의 개성이 통·폐합되기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반 세속의 학교식 통합은 반대한다. 이미 출가자의 연령이 평균 30세를 넘었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추었다.

옛스님들이 세뇌받은 강원 통·폐합을 찾기보다는 전통강원의 체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선적으로 반성해 보아야 하겠다.

(법주사 감주)

승가대학·학림 교육체계 이원화 필요

교육원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 통합과 관련한 일련의 작업은 종단의 교육개혁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것이다.

그간 일부 강원들이 학인의 수적 감소와 교습체제의 미약 등으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원의 복안이 「강원 통·폐합」과 「대형교육기관 형성」의 선이라면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정스님



그 하나의 방법으로 승가대학과 학림의 뚜렷한 구분을 제시할 수 있다. 중앙승가대 등 일부 승가대학은 승려교육의 기본 구조로 자리매김 되고 학림은 보다 깊

이 있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승가대학의 역할과 경을 학림이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대에 맞는 승려교육기관의 이원화의 정착을 뜻한다.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 교육기관과 전문적인 경학연구의 기능처가 공존할 때 불교도 현대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중앙승가대 기획실장)

시론

‘20대 신인간’ 우려의 대상인가

오늘의 우리 사회를 도덕적 위기의 사회라고 한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집착로 악(탐·진·치)이 득세하고 선(계·정·혜)이 맥을 못추는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도덕적 위기의 조성자로 청소년을 지목하는 견해가 팽배하고 있다.

오늘의 청소년은 과거의 청소년에 비해 가치관이 흔들리고 비행이 늘고 있으며 앞날의 사회가 염려된다고 성인들은 근심하며 한탄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도덕적 위기를 나타내는 여러 징후들이 있다. 4월 15일자 중앙일보에는 20대 여성들의 상담수가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며 계약결혼, 독신, 동거를 선호하고, 또한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도 생각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게재한 바 있다.

물주, 흡연이 늘고 환락제를 복용하는 청소년이 있으며, 절도, 강도, 성폭행자의 급증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위기 상태에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와같이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변화 및 비행증가에 따라 청소년을 소극적·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을 적극적·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즉 청소년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들은 사회의 후보자나

정치적 감각에 있어서도 가장 예민한 것이 청소년기이다. 유명한 일본의 명치유신도 젊은이가 중심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4·19혁명 또한 청소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유관순은 16세에 ‘아우내 만세사건’의 주역이 되었다. 음악에 있어서는 흥남파가 22세에 ‘봉선화’를 작곡하였음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다. 오늘날 정보사회를 이끄는 컴퓨터의 조작기능을 어른들이 과연 청소년을 따라갈 수 있을까?

창의적 잠재력 육성

이와같이 청소년들은 예리한 지적, 반짝이는 직관력, 감인한 체력, 순수한 열정으로 나라와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기수가 되어 왔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을 도덕적 위기의 조성자로 보기보다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청소년 대책이 시급하다고 부르짖는 대부분의 성인들은 청소년을 도덕적 위기의 조성자라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 물론 청소년 비행, 극단적으로는 청소년 범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었지만 그보다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청소년 대책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김종서 <한국교육개발원 이사장>

청소년에 대한 시각의 정립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나 대책수립의 핵심적 과제이다. 왜하면 정립된 시각이 ‘자기충족에 인(自己充足豫言)’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자기충족에인한 인간이 어떤 기대의 제시를 받고 이를 확실한 제시된 기대에 알맞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말한다. 청소년을 도덕적 위기의 조성자로 보는 시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청소년은 그러한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질지 모른다.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성인들이 기대하고 청소년들이 이를 확실한 유망한 청소년으로서의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는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현재의 성인들도 청소년 때 당시의 성인들로부터 도덕적 위기의 조성자라고 문제시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문제시되었던 과거의 청소년이 성인이 된 오늘날은 과거의 성인보다 사회를 더 발전시켰다.

마찬가지 논리로 현재의 청소년이 성인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현재보다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창의적 잠재력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기회, 예술적 정서에 젖을 수 있는 기회, 봉사심을 자극하고 이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의 성인이 얼마나 제공하였는지에 있다. 아니 기회의 제공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봉쇄하고 좌절시키는 잘못을 성인들이 저지르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을 반성치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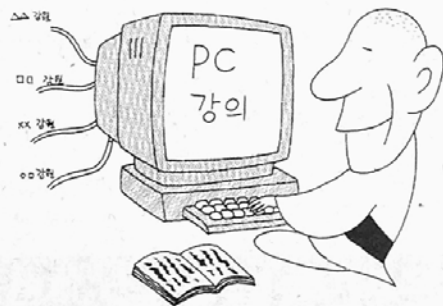
전통가치 거부세대

한 나라의 사회의 존속·발전의 기틀이 되는 것이 국방인데 이 국방의 임무를 청소년이 맡고 있다. 우리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청소년들은 나라를 위하여 많은 생명을 내던진 숭한 예를 역사를 통하여 역력히 보아왔다. 국뎀도 지어 못한 영령의 거의 전부가 청소년이다. 체육활동에 의한 국위선양도 청소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개최된 88 올림픽에서 세계 4위를 달성하고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세계 7위의 명성을 떨친 것도 청소년의 힘이다.

과하게 있어서도 청소년은 무서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것도 젊은 과학도들이다. 그들이 연구에 종사한 나이는 20세 1명, 22세 1명, 23세 6명, 24세 1명이다.

청소년 시절에 벌써 큰 명성을 떨친 문인도 무수히 많다. 최남선은 18세 때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인 「소년」을 창간하였으며, 김소월은 어찌도 어린 나이로 할 수 있는 16세, 17세 때 수 많은 시를 썼으며, 유명한 ‘진달래꽃’ 역시 21세 때의 작품이다.

현대 만평 박구원



교육도 시대따라...

조계종 총무원 출판사업 개시!

1996년 조계종 공식「불교달력」을 제작 보급합니다.

- 조계종 개혁 중헌은 종단의 3대 사업인 포교·역경·도제 양성을 더욱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종단체제 및 기구를 혁신하였습니다. 이에 총무원은 종도들의 신뢰와 여망을 토대로 사업부를 통해,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목적 사업을 벌여 종단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부가 신설되면서 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첫째: 목적사업을 통해 종도들의 소속감과 결속력이 강화돼 종단의 큰 힘을 창출합니다.
- 둘째: 포교용 도서 및 사료적 가치가 큰 기획도서의 자체출판과 함께 각 사찰에서 발행하는 불교출판물의 기획·편집·제작을 헤쳐드립니다.
- 접수처: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 ■ 전화: 735-2042/3 ■ 팩스: 722-2606

첫 목적사업으로 지난 3월 28일 「도서출판 조계종 출판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출판문화사업을 벌이고자 합니다. 또한 출판문화사업과 관련하여 종도들의 수요가 가장 크고 실용적인 포교물인 달력제작 불사에 착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불기2540년(서기1996년) 조계종 공식 불교달력 보급이 종단차원의 불사임을 인식하셔서 애중심으로 사업부에 맡겨주시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 월 주  
총무원 사업부장 이 설 송